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린이주일 메시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서울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목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노트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름을 적었습니다..
목사 이종윤,
박사 이종윤,
교수 이종윤,
하나님은 이름과 같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욱 중요합니다.
먼 훗날 성공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미래는 현실이 아닙니다.
훗날에 대한 바램은 오늘을 힘차게 할 수는 있으나,
오늘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외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서울교회 어린이들과 북한의 어린이들,
또 나아가서 지구촌 어린이들
마음에 심겨지기를 기도 드립니다.

목사 이종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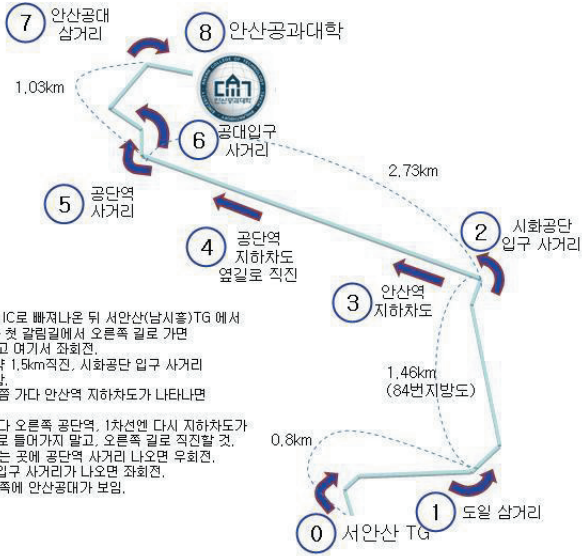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모이자! 한마음 한가족 축제로

- 5월5일(화) 오전 10시 -

● 안산공대 가는 길



<오시는 길>

-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로 빠져나온 뒤 서안산(남시흥)TG에서 요금 내고 나오자마자 첫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가면 도원삼거리가 나타나고 여기서 좌회전.
- 84번 지방도를 타고 약 1.5km 직진, 시화공단 입구 사거리 나타나면 또 좌회전 할.
- 중앙로를 타고 0.2km쯤 가다 안산역 지하차도가 나타나면 지하차도로 들어가.
- 약 1.9km 계속 직진하다 오른쪽 공단역, 1차선엔 다시 지하차도가 나타나는데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말고, 오른쪽 길로 직진할 것.
- 공단역 지하차도 끝나는 곳에 공단역 사거리 나오면 우회전.
- 200미터 직진해 공대입구 사거리가 나오면 좌회전.
- 1km쯤 직진하면 오른쪽에 안산공대가 보일.
- 안산공대 도착

● 팀구성

팀명	교구배치	단장	팀갈라
사랑	1,2,7교구 에바디부	김광신 장로	빨강
소망	3,4,5,6,8교구 디아스포라부	노송성 장로	파랑
충성	9,10,11,12,15교구 외국인	홍성주 장로	노랑
믿음	13,14,16교구 사랑부	이영수 장로	흰색

한마음 한가족 전교인 체육대회가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체육대회는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이번 한마음 한가족 체육대회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교회 장로님들이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안산공대까지 가기 어려운 노약자들(각 교구별 선정)을 위해 교회에서 오전 8시30분 단체버스 10여 대가 출발한다. 그의 성도들은 승용차를 이용(약도 참조)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산공대 실내체육관으로 모이면 된다.(대중교통: 지하철4호선 안산공단역 1번 출구에서 시흥방향으로 5분 거리-셔틀버스 운행)

5월5일 하루 동안 즐겁게 운동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개인준비물은 운동화를 신고 하의는 체육복, 상의는 팀별로 지정된 색상의 T셔츠를 입으면 된다.

성도 여러분의 망설임 없는 참여를 기대한다.

모이자! 안산공대로...

어린이 주일

교육1국 다양한 행사로 축하해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키며 다양한 행사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는 어린이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짜장면을 점심으로 준비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교육1국은 어린이주일을 맞아 각 부서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축하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유년부와 초등부(6학년 강예선 외 40명)어린이 연합찬양대를 구성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우리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여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한다.

10대 장로후보 공천을 위한 제직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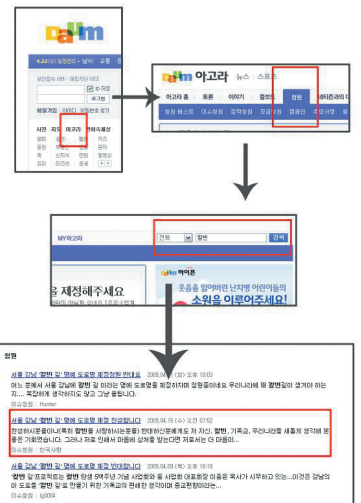
10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 2층에서 열린다.

오늘 제직회에서는 인수집사와 권사 중 장로후보 배수 공천(20명)을 하여 득표순으로 20명을 선출하고, 이를 다음 주일(5/10) 순례자에 발표한다. 이후 5월17일 주일 찬양예배 후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2/3 이상 득표자 중 10명까지 순서대로 피택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0대 장로를 선출하는 모든 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기도한다.

『갈빈길』 찬성 동참합시다

다음 접속 → 아고라 검색 → 청원 → 이슈청원 우측 검색창에 갈빈길 입력 → 갈빈길 제정 찬성 → Daum에 로그인하고 서명 하면 된다.



만민에게 전도 - 도고팀 탐방

북한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순례자는 선교사 도고팀 탐방 기사를 연속해서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순서로 북한 선교를 위한 도고팀을 찾아갔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아직도 안 버리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분명 있다고 믿어요.” 도고팀장 박현영 권사의 말이다.

북한 선교를 위한 도고팀은 아직도 우리 교회엔 실황을 당한 성도들의 후손도 많고 이 모양 저 모양 북한과 관련이 있는 분도 많은 만큼, 뜻있는 분들이 북한을 위한 도고팀에 더욱 많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며 북녘 땅의 기적을 함께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북한선교를 위한 합심기도제목>

- 복음의 불모지, 우상숭배가 만연한 북한 땅에 세워진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 지금 이 시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인들의 울부짖는 기도소리를 하나님 들려주소서.
- 오늘도 김정일 정권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북음화된 통일 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김민철(편집부)

“...다른 도고팀들은 선교사들이 현지에 들어가서 크고 작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고팀은 선교사도 없고, 들려오는 한 마디의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를 시작합시다...”

탈북자 출신 박광일 전도사의 인도로 시작되는 <북한 선교를 위한 도고팀>의 기도회는 여느 도고팀과 사뭇 다른, 자못 숙연한 분위기였다. 선교사 한 명도 보낼 수 없는 저 복음의 불모지 북한을 생각하는 도고팀원들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 모습 때문이었다.

매 주일 오후 4시 609호실에서 만나는 북한 선교 도고팀의 팀원들은 대부분 다소 특별한 계기로 이곳을 찾아온 경우가 많다. 가족분의 고향이 북한 땅이어서 실황의 슬픔을 곁에서 보다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분,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담은 영화나 책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도고팀에 들어온 분, 또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다락방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해 보고자 나온 분 등... 이렇게 모인 팀원들은 현재 10명을 넘어서고 있다.

만민에게 전도 - 북한의 친구들에게

은희야! 영수야!
꼭 살아있어야 해!



혜진(디아스포라부)

안녕!! 친구들 잘 있었니?
나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은희, 영수, 너희들과 함께 고향 온천에서 뛰어놀던 혜진이란단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살고 있단다.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야. 우리가 나서 자란 탄광마을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마치 천국과도 같은 곳에서 나는 세상에 부러움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며칠 있으면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 날'을 맞이하게 된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의 어린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단다. 비록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너희에게로 갈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 편지를 통해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선 죽지 말고 꼭 살아있어야 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 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너희들을 굽어보고 계시고 있어. 그러니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배고프지 않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처럼 어린이 날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수족관에도 가고 놀이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감동해 우리 고향 땅에도 잘 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실거야.
나도 여기 서울에서 늘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나는 여기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단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서울교회라고 해. 우리 서울교회에도 북한에서 온 오빠, 언니,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단다.
그러구 우리 서울교회 목사님은 늘 설교시간에 우리 북한 땅을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시고 계시. 그러니 힘을 내!!
나도 기도로 너희를 도울게.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

서울에서 혜진이가...
북한에 있는 은희, 영수에게

만민에게 전도 - 북한의 친구들에게

그 날을 위해 기도할게!

강재원 (초등부 5학년)

우린 같은 민족이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뛰놀지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구나!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으로 지금의 불경기도 극복하고, G7안에 들어 선진국 대열에 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서독과 동독이 그렇듯이 우리가 한나라로 통일이 되면 정말 좋겠구나.
우리는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때니?
내가 그날을 위해 기도할게.....

이선우 (초등부 5학년)

나는 남한에 사는 기독교인 이선우라고 해. 기독교인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신 줄 아니?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이야.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시.
친구야.
그쪽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지? 하지만 예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강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거야.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였어.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 밤낮으로 기도하며 살았지.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 뒤에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지.
친구야. 언더우드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우리나라를 구해준 사람이야.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온 사람이시.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할 뿐 아니라 학교를 세워 교육을 시켜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왔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온 사람들을 많이 박해 했어.
그때는 지금 북한하고 똑 같았어.
하지만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
너희가 사는 북한에도 언더우드 같은 전도인이 오라고 기도할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이란 걸 기억해...

서승희 (초등부 5학년)

북한 어린이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기도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
친구야!
넌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
가요? 애국가? 나는 찬양을 좋아해.
찬양은 기도대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찬양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기뻐.
나도 개인적으로 찬양을 좋아해서 교회에서 하는 합창단을 3개나 해(무지개, 연합, 초등부) 굉장하지?

유동혁(유년부 2학년)

북한 친구들에게.
애들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다. 참 신나는 날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란다.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평화의 그림은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인데 너희 나라의 평화는 어떤 건지 혹시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니?
인공위성 발사는 이제 안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평화의 나라에서 공부하고 뛰어놀면 얼마나 좋겠니?

김윤태(유년부 1학년)

친구야 안녕.

나는 서울교회 유년부 김윤태라고 해.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 어렵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좋은 친구를 삼아 주실 거야.
너도 꼭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기도하면 좋겠다.

천국시민양성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기도 밖에 없습니다!

이영숙 집사(고등부 학부모)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시절이 일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첫 번째 분수령으로 이 시기에는 학생 개인의 목표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목표가 우선임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의 끊임없는 기도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8일부터 매주일 12시40분에 604호에서 열리는 '고등부 자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고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의 영혼 구원에 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자서는 5분 이상 기도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이, 두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교사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한마음으로 30분가량 뜨거운 합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등부 학부모는 서울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고등부 자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첫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기도회의 초점이 모아지도록

둘째, 세상과 악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의 굳건한 토대 위에 바르게 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셋째, 특히 고3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바라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유년부와 초등부 연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준비된다.

연합찬양대(6학년 강예선 외 40명)는 김지현 선생(이화여자대학교 성악학부 졸업/유년부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와 박재원 선생(한양대학교 작곡과 졸업/유년부 찬양대 반주자)의 반주로 '나는 특별해요(정태욱)', '오 나의 주님 (David Graham)', '서울교회 커플의 사랑이야기(원제 솔티 아저씨의 사랑이야기 / Peter & Hanneke Jacobs)', 'Who'll be a witness?(Arr. Buryl Red)', '오 주님 내 맘에 믿음주소서(Arr. Emie Rettino & Debby Kerner Rettino)' 등 5곡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이종운 목사 저서 40% 할인판매

-4, 5월 두 달간-

우리교회 서점에서는 이종운 목사 저서 전체를 40%할인 판매하고 있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5월4일(월) 기독교학술원이사회, 6일(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5주년 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 백경화집사(시온찬양대 지휘자, 국립합창단 반주자)는 국립합창단 베를린연주회로 출국

■ 주간식당봉사: 제1권사회(5.3) 제2권사회(5.12)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어린이 주일을 축하합니다)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친구 고(故)이승선을 기리며

우리 가슴에 찬란한 빛으로

태양이 솟아올라
잠시 숨을 멈출 때
그녀는 새벽별을 잡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고,

삼척 바다의 파도가
길게 선을 그리며
그녀를 소리 없이 뒤따릅니다..

끝이 없던 기찻길을 달리며
소곤소곤 웃어댔던,
붉은 새벽을 마주하며
설레던 시절도
잠시 접어두고,,

우리 다시 만날 것을
침묵으로 약속 합니다.

굽디 고운 손으로
수 놓았던 음표들이
끊어져 버린 수평선에
하나씩 걸리어 흔들립니다.

고이고이 접어둔 꿈들이
하늘의 물안개 되어
하얗게 사라지고는..

기차는 여전히
요란하게 달리고,
별 하나
텅 빈 삼척 바닷가에서
길을 잃고 서성입니다.

지금엔
하늘의 영광!

생명 강가
푸르른 언덕 위에
천군 천사 줄을 이으며
새하얀 세마포 드레스
치명히 늘어뜨리고
천상의 악기를 연주하는
그녀를 바라봅니다.

새벽 하늘에
울려퍼지는 찬양이
한줄기 눈물 되어
우리 가슴에 찬란한 빛으로



오화영 성도(대구에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한마음 · 한가족 전교인 체육대회 위하여
3. 칼빈탄생500주년기념대회, 로잔국제지도자대회, 장로교의날 행사준비 위하여
4. 어린이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하여
5. 세계적 경제 대란을 잠재우고 북한의 전쟁위협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